

란이 코헨 박사(Dr. Ronny Cohen Essay)

곽 수 (Su Kwak), 선화랑 전시도록,1996

그림이 인생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라면, 곽 수에게 추상은 영혼과 사랑과 마음의 지도를 솔직하게 그림으로 펼쳐 놓는 것이다. 그는 사물을 기억이라는 개념의 체로 걸러내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외관상의 베일을 벗긴 후, 그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인도한다. 그의 작품에는, 인생의 의미를 앞장서 추구하는 창작자로서, 인생의 모험가, 사회의 개척자의 특수한 사명을 지닌 현대화가로서 그가 가진 깊은 생각들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곽수의 작업은, 그가 지닌 예술 전반에 대한 강렬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미국에서 받은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기인하며,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생활과 첨예한 극적인 순간들 속에서 그 뜻을 음미하고 반추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 시작한다.

곽수의 그림과 추상에 대한 기초는, 휴스턴의 세인트 토마스 대학 (St. Thomas University), 시카고대 대학원 (University of Chicago) 서양화와 동양화 교육에 뿌리하고 있다. 1970년대 대부분의 미술학도 처럼 세잔과 피카소에 흥미가 있었으며, 특히 공간에 대한 그의 추구는, 그의 화가로서의 발전에 직접 기여했다. 20세기 초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구자, 말레비치 (Kazimir Malevich)에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바넷뉴만 (Barnett Newman), 이태리 현대 정물화의 선구자, 조오지오 모란디 (Giorgio Morandi) 등, 여러 화가들이 곽수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으며, 다양한 공간 이론과 여러가지 공간 표현 형식을 탐구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서, 그는 석사학위 논문을 17세기 청나라의 유명한 화가, Tao Chi (石波)의 철학, “끝이 없는 우주 공간”의 개념, “일 획(一劃)의 개념에 대해 씬으로서 그의 공간 연구와 그림의 시야를 넓혔다. 그가 대학원 시절, 공간과 화면 구성에 대한 흥미를 개발 할 때 그린 추상화들은, 그 때 미국을 휩쓸고 있던 미니멀리스트 (Minimalist), 포스트 미니멀리스트 (Post Minimalist) 들에 대한 그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곽수는 미니멀리스트와 포스트 미니멀리스트의 큰 공헌인 캔바스의 형태와 표면 (Phenomenology of Painting)을 분석시키는 방법을 숙달하였다. 그러나, 곽수는 그들의 좁은 학설에 흡수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니멀리즘이나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기하학적인 형태 (reductive qualities)에 제한받지 않고, 자연에 근원을 둔 도교나 선불교의 “무 (無)”의 관념, “여백”의 관념에 더 관련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곽수는 오래전 부터, 한국에서 자랄때의 경험, 특히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 산, 호수, 들판, 숲속들의 자연과의 경험을 잊지않고 간직했다. 1980 년대에서 지금의 1990 년대 까지의 그림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 한국과 미국의 자연과의 통괄적인 경험을 그린 것이다. 그의 자연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강력한 감성은 그의 시적 (詩的) 인 상상력을 키우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인 요소가 되었다.

1980 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빛” 주제에 중점을 두고 구성을 바탕으로 추상적, 자연적, 사실적인 요소들을 통합시키고 연합시켰다. 잇따른 연제의 그림들을 통해, 곽수는 형상이나 물체를, 또한 여러차원의 뜻을 포함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연제중의 처음 시리즈는 물질적으로 그 반대인 “빛의 길” 연제로 발전되었다. 마른 꽃잎과 혼응지 (Paper Mache) 와 캔버스 조각들로 엮어진, 밀집된 단편적인 화면의 “빛의 길” 시리즈 그림들은, 만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빛, 평면 조각적인 지형, 객관적인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이며, 나아가서, 내적이며, 사색적인 “거울과 빛” 연제로 변화되었다. 화면에 부착된 거울조각들은, 보는이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빛의 반영을 직접 경험하라고 손짓한다. 또한, 화면에 붙여진 오래된 예루살렘 성경의 책장들은 신적인 지혜와 믿음의 빛의 표적이다.

“갈라진 빛” 시리즈에는 성경 책장이 그림의 표면에 거의 다 파묻혀 지거나 숨겨진 채, 부착물이 모두 제거 되어, 그림의 강조점이 색상과 형태가 시사해 주는 예민한 연상력으로 옮겨진 그림들이다. 곽수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한 분별력 있는 통찰력으로, 상반되는 극들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 시리즈는 어떻게 선과 악에서, 쾌락과 고통까지, 한 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알아야 만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의 동적 (動的) 인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다. 곽수는 “갈라진 빛” 그림을 통해, 인생의 신비와 기적을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